

사) 한국환경준설학회 뉴스레터

# KEDS NEWSLETTER

고문: 류재근 홍기훈  
회장: 양동범  
부회장: 공 준 김경련  
김영석 김정환 김홍선  
박재우 신원식 이재관  
이호식 정창수  
감사: 김석현 손민호  
발행: 한국환경준설학회  
편집위원회

후원 사)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 류재근)

Http://www.k-environmentaldredging.or.kr (우) 137-773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제4연구동 4102호  
(투고 안내: 총무이사 최진영: 전화: 031-400-6152,6185 팩스: 031-408-4493 E-mail: keds2011@naver.com)

## 목차

### - 발간사

- 1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 2 해외퇴적물 관리 기술/학술 대회
- 3 퇴적물 관련 국제회의
- 4 언론에서 보는 국내 준설기사
- 5 국외 준설기사
- 6 회원동향
- 입회원서
- 단체회원소개



## 발간사

한국환경준설학회 회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환경준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퇴적물의 환경평가 및 관리, 환경준설공법의 적용, 준설물질의 처분 및 재활용 등 모든 과정에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정책적, 법적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회는 전문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환경준설을 위한 관련분야의 공통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우리나라 환경준설사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학술단체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29일에는 춘계학술대회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새로운 환경시장 창출을 위한 준설, 준설물질 유효활용을 위한 장애요인 해소에 대한 심포지움, 종합토론 등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으며 산업계,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가치 있는 성과를 수확하였습니다. 발표자와 참가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친목 도모를 위해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이 뉴스레터를 주위에 계시는 관련 산업계/정부/학계 여러분들께 회람하여 주시면 더 넓은 환경준설 관련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의 기관지인 "한국환경준설학회지"에 논문, 기술보고, 환경준설공법의 적용사례,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등을 많이 발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레터와 학술지는 학회 홈페이지에서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사)한국환경준설학회  
회장 양동범 배상  
dbyang@kiost.ac.kr

## 1 한국환경준설학회 2016 년 추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 주최: (사)한국환경준설학회
- 후원: 해양수산부,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사)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워터저널
- 일시: 2016 년 11 월 18 일(금)
- 장소: 프리지던트 호텔 (서울 시청 앞)
- 참석: 산업계,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관계자 50 명
- 협찬: 해양생태기술연구소, (주)HPlusEco  
(주)지오시스템리서치, (주)토양건설,  
(주)신대양 및 단체회원사

## 2 해외 퇴적물 관리 기술/학술 대회

**제 9 회 바텔 오염퇴적물 정화 및 관리 국제 학회**  
(37<sup>th</s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mediation and  
Management of Contaminated Sediments) 9 -12 Jan  
2017, New Orleans, Louisiana,  
[http://www.battelle.org/newsroom/conferences/sedimnt  
scon](http://www.battelle.org/newsroom/conferences/sedimnt<br/>scon)

**제 37 차 국제 수력-환경 엔지니어링 및 협회 국제학회**  
(37<sup>th</sup> IRHR World Congress) 13-18 August, Kuala  
Lumpur, Malaysia,  
<http://www.iahrworldcongress.org/>

**제 37 회 토양, 퇴적물 및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학회**  
(14<sup>th</sup>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of Soil,  
Sediment and Water Resources) 26-30 June 2017,  
Lyon, France,  
<http://www.aquaconsoil.org/>

## 3 퇴적물 관련 국제회의

**제 40 차 런던협약 및 제 11 차 런던의정서 과학그룹회의**  
개최 (40<sup>th</sup> London Convention/ 11<sup>th</sup> Protocol  
Scientific Group Meeting) 27-31March 2017,  
London, UK.

**2017 준설 정상회담 및 엑스포 (Dredging Summit &  
Expo 2017) 26-29 June 2017,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https://www.westernredging.org/index.php/events/  
dredging-summit-expo](https://www.westernredging.org/index.php/events/<br/>dredging-summit-expo)

## 4 언론에서 보는 국내 준설기사<sup>1</sup>

### 하천

[부산] 부산시는 최근 대표 도심하천인 동천 서면 광무교  
에서 범일교까지 1.77 km 구간의 동천에서 준설작업에 들  
어감. 수년간 각종 부유물이 뒤섞여 쌓인 오폐수는 강물의  
유속을 떨어뜨리고 악취를 풍겨왔는데, 물이 빠지고 강바  
닥이 드러나면서 독한 악취가 여과 없이 퍼짐. 예상 준설  
량은 3만5천 m<sup>3</sup>으로, 25 t 덤프트럭 1천400대 분량이며 31  
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인근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 직원  
과 인근 주민은 역한 냄새 때문에 근무나 생활이 힘들 지  
경이라고 호소함. (연합뉴스, 2016-05-20)

[인천서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은 청  
라국제도시의 쾌적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라호수  
공원 주운수로 준설을 6월 중순에 시행함. 이번 사업은 주  
운수로의 침적물 및 수초 등을 제거하여 하절기 부영양화  
등 수질악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행됨. 청라호수 공  
원은 수질정화시설을 갖추고 3단계 정수과정을 거쳐, 3급  
수로 유입된 호소수를 2급수로 처리(호소의 생활환경기준)  
하여 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음. (인천경성신문, 2016-06-  
03)

[김해]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조만강이 만수위에 이르  
면서 인근 장유지역 신도시 예정지(신문동 일대 신문신문  
1지구/총 118만810 m<sup>2</sup>)가 20~30%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  
함. 이 일대는 곧 인구 2만 명의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  
어서 하천 준설 등 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  
옴. 현재,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만강 준설,  
신도시 예정지 부지 복토 등이 검토 중에 있음.  
(국제신문, 2016-10-11)

[신안] 현재 논 마름과 발작물 시듦 현상 등 가뭄 피해 극  
복을 위해 저수지에 대한 퇴적토사 준설사업을 조기 추진  
중임. 또한 신안군은 유역면적이 작고 관정개발 등 농업용  
수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경지정리 배수로 말단을 막  
아 바다로 나가는 물을 가두어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하기

<sup>1</sup> 학회에서 기사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음.

때문에 이번 준설사업을 통해 배수로도 정비할 예정임. 또한 앞으로도 항구적인 가뭄 해결을 위해 간이 양수장 및 제수보 설치, 발작물 포강신설 등 한발대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무등일보, 2016-08-24)

[춘천] 시는 앞서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토사 범람으로 농경지, 가옥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 10곳에 사방댐 조성을 마쳤으며 사방댐 준설과 정비사업을 추가로 벌인다고 밝힘. 이 준설사업은 기존 사방댐에 잔뜩 뒤덮은 자갈과 흙을 덜어내 물 흐름을 좋게 하는 목적임. 준설작업 위치는 지암리, 오항리 2곳이며, 동산면 원창리, 동내면 고은리, 사북면 지암리 3곳도 보수할 예정임. (신아일보, 2016-07-25)

[청주] 차집관로 등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에 차집관로 팀을 신설함. 차집관로팀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 98 km와 우수토실220곳, 읍면단위 처리장 43곳의 간선관로 및 중계펌프장, 무심천 월류수처리시설을 중점 관리하였고, 점검중 악취와 해충발생으로 인한 시민불편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복개하천 3곳의 차집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힘. 그래서 토사가 많이 쌓여 오수가 하천 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까지 관로를 준설할 계획임. 2018년 말까지 개선사업할 예정임. (아시아뉴스통신, 2016-10-17)

## 해양

[포스코] 벨기에 장데눌社와 MOU...준설-토목사업에 WP 제품 공급 포스코가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최초로 해외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포스코는 14일 포항 청송대에서 벨기에 장데눌(Jan De Nul)社와 비즈니스 협업 MOU를 체결, WP제품 해외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함. 장데눌社는 1938년에 설립된 글로벌 준설사로 준설선 78척과 부대 선박 177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목, 간척, 환경 및 풍력사업 분야도 담당하고 있어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당사 주요사업에 포스코 WP재 적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BN, 2016-06-14)

[진해] 진해 응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준설

투기장에 시꺼먼 빨 매립 의혹을 놓고 적합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음. 투기가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했고, 문제의 시꺼먼 빨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신축 공사장의 토취원의 시험 성적표에는 빨은 무시된 채 흙의 품질 검사만 한정돼 있음. 창원시 관계자에게 계약서와 시방서 내용 열람을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아직 정식으로 보고서나 성적서는 없으나 토사의 적합 부적합만 보는 것 이므로 승인 대상이 아니다"며 공동 땅 36%의 주인이 이상한 답변을 내 놓아 주목됨. (뉴스경남, 2016-07-24)

[인천] 인천 무의도 어민들은 2013년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입출항 선박을 위한 준설공사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했다며 인천해수청에 피해보상을 요구함. 어민들은 무의도 연안해변이 크고 작은 준설공사로 피해가 누적돼 갯벌층과 모래층은 거의 유실되고, 기초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돌과 바위 등만 남았다고 주장함. 인천해수청 김태년 과장은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영향조사결과, 어민피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행정절차에 따라 어민들을 도와주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016-06-02)

[울산] 울산항만공사는 84억원을 들여 울산본항 일대에 대대적인 준설 공사를 시행함. 태화강 하류의 울산항은 토사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선박 안전을 위해 주기적인 준설이 필요함. 토사가 퇴적되면 수심이 낮아져 입출항 선박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항만공사는 설명함.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울산항 일대의 수심을 측정하고 준설계획을 세웠으며, 23일 착공에 들어가 12월 말까지 총 53만8천 m³를 준설할 예정임. (연합뉴스, 2016-05-17)

[여수] 2년간 247억 투입, 3만 t급 입항 가능 - 4일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청장 정복철)은 울춘1산단 입출항 선박의 항행안전과 효율적 항만운영을 위해 2년간 국비 247억원을 들여 진입항로 준설공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힘. 현대하이스코부두 진입항로는 12만 DWT급 선박을 기준으로 준설됨. 울춘1산단 지역은 울춘일반부두(2만 t급), 현대하이스코부두(12만 t급) 등 향후 3만 t급 철재부두 건설이 계획됨. 여수해수청은 "이 공사로 울춘산업단지 활성화와 기능 강화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함. (뉴시스, 2016-07-04)

[마산] 마산항 제2항로 준설도 매립 계획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이하 협의회)는 마산항 내 효율적인 선적 재배치가 우선이며 마산만의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준설량을 재산정해 투기장 조성 면적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함. 또한 이들은 "무역항 기본계획 수립 때 마다 반복하는 문제가 준설과 준설에 따른 매립"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준설도 재활용 방안도 촉구함. 준설토는 환경생태계 보호 등의 이유로 가포신항 인근을 매립지로 한 현재 안을 채택함. (경남도민일보, 2016-06-29)

[군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7월 20일 선박 입출항과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해 지난 6월 착공한 '군장항 유지 준설공사' 시행에 앞서 일대 수역 측량에 들어간다고 밝힘. 측량작업을 마치면 내년 3월까지 65억 원을 들여 토사 퇴적이 심한 58만 m<sup>3</sup>의 준설작업을 할 예정. 이 준설작업으로 1천 TEU급 컨테이너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해지고 군장항 항로 안전과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연합뉴스, 2016-07-20)

[전북]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새만금 내부 준설 중단과 생태보전지역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4일 발표. 조사단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진행 중인 내부 준설이 심각한 생태계 파괴(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파괴)와 수질 악화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함. 새만금은 수질 개선에 약 1조 6000억 원을 들였음에도 현재 5-6급수의 수질을 보이고 있음. 조사단은 "새만금 내의 본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새만금 갯벌 매립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함. (오마이뉴스, 2016-07-06)

[부산] 부산해양수산청은 이달 27일 다대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착공한다고 밝힘.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공사를 맡아서 2018년까지 8 t 트럭 1만1천670 대 분량의 퇴적물을 청소함. 반폐쇄성 지형인 다대포항의 오염도 조사에서 유해화학물질, 부영양화정화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지점이 많아 부산해수청은 '다대포항클린협의회'를 구성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화운동을 유도하기로 함.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해안 산책로, 소공원, 전망대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05-24)

[인천] 인천항 일부 수심이 당초 계획보다 얕다는 지적에 인천항만공사가 이달 내 준설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힘.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항 제1항로부터 제3항로, 북항~경인항, 인천북항 등 5개 항로의 실제수심이 계획보다 얕아 선박의 안정성 문제와 이용자 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함. 그 중 가장 심각한 지역은 제1항로로 북항 진입부근의 항로 경계선으로 계획수심보다 6 m 낮으며, 제2항로도 항로 경계선상과 방파제 주변은 28~5 m 까지 저수심 구역이 분포돼 있다고 지적함.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말부터 6개월 동안 44억 원을 들여 연안항 등 일대에 퇴적된 토사 약 19만 m<sup>3</sup>를 준설기로 함. (중부일보, 2016-10-10)

[부산] 급속한 선박 대형화와 신항 물동량 성장세에 따른 선박사고 증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항 입구부 항로를 서측 수역(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남측과 가덕수도를 잇는 해역)으로 약 23도 가량 확장하는 '부산항 신항 항로 확장 준설공사'를 착공함. 이 준설공사는 대형선박 통항에 안전한 항로폭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공사비 168억을 투입, 약 560만 m<sup>3</sup>의 준설, 내년 12월 완료할 예정임. 그리고 현재 2006년 개장 시 15 m의 수심을 확보했으나, 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라 2014년 하반기부터 17 m 이상의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중심(2단계) 준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음. (파이낸셜 뉴스, 2016-08-17)

### 도시수로 및 기타

[제주]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제주 서귀포시 하수펌프장 슬러지 준설사업에 공사 수주업체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참여해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됨. 제주도 소방안전 본부는 퇴적물의 유독가스로 질식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함. 숨진 근로자가 규정된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 관리 소홀이 사고 원인이라고 추정됨. 경찰도 숨진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와 함께, 안전 매뉴얼에 따라 밀폐공간에 내부 환기, 유해가스 농도 측정, 공사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음. (연합뉴스, 2016-07-08)

[파주] 파주시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 강우량을 초과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심권 시가지 및 상습침수지역하수관로 16 km에 대해 준설공사를 실시함.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시 유지보수업체가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권역별 하수도 준설업체 6개사와 하수도 유지보수업체 6개사를 선정. 운영하는 등 권역별 긴급대응 체계를 마련. 김재군 하수도과장은 “파주는 물난리를 두 번 겪은 지역으로 더 이상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함. (파주일보, 2016-07-01)

[여주]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시가지 침수 우려지역의 원활한 하수 흐름을 위해 추진한 하수도 준설공사를 지난 6월말 완료했다고 5일 밝힘. 이번 준설공사는 장마철을 앞두고 하수관로에 퇴적된 오물 및 토사를 우기 전에 제거해 하수관로의 막힘·역류·침수·악취 등 주민의 안전사고와 주민불편을 예방하고자 실시됨. 아울러 하수관로의 CCTV 내부촬영 조사를 병행 실시해 지반침하(싱크홀)의 원인이 되는 관로 내부결함 발견 시 즉시 조치할 방침임. (이뉴스투데이, 2016-07-05)

[장읍] 퇴적된 토사와 슬러지로 인한 배수 막힘과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준설작업을 진행중임. 현재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중이며 곧 1000만 원을 들여 총 3 km구간 관로와 맨홀 등을 대상으로 진 흡입식 장비를 이용해 준설을 할 예정임. (NSP 통신, 2016-9-07)

[사천] 해당 지역은 여름철 식당 등지에서 유입된 하수 및 기름찌꺼기 등이 하수도에 쌓여 하수역류 및 악취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음. 그래서 시는 이 일대 4.5 km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난 17일부터 준설작업에 본격 추진함. 현장조사 중 여름철에 음식점과 가정에서 무심코 버린 기름이 오수관로에 흡착돼 하수도 막히고 역류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위해 하수도 관리에 대한 홍보 및 지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경남일보, 2016-08-18)

[충북] 이번 사업은 퇴적된 토사 및 슬러지로 인한 배수막힘과 악취발생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가지 및 주민밀집지역 등의 오수·우수관로 내에 대한 준설작업을 실시할 예정임. 총 287 m의 구간에 대해 관로, 맨홀, 빗물받이 등 진공흡입식 장비를 이용해 오는 9월중 준설 작업을 마칠 예정임. (충북일보, 2016-08-29)

## 5 국외 준설기사

### 미국

#### City to dredge sandbar left under dam after flood



Owatonna시는 Morehouse 댐 하부의 모래톱 준설 1년만에 재 공사를 계획하고 있음. 2006년에 재건된 댐은 2010년, 2104년에 계속된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 모래톱은 2015년 9월에 약 1600 m<sup>2</sup>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퇴적물이 제거되었으며 10,000 \$ 의 비용이 소모되었음. 그러나 모래톱은 재 발생 되었고, 뒤따르는 홍수에 의하여 퇴적물이 쌓였음. 2015년 준설이전에 시의회는 강의 흐름을 바꾸고 퇴적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더욱 비용이 높은 계획을 고려하였으나, 결국 준설공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지보수를 하기로 결론지었었음. 시 소속 기술자 베일 Pekuri는 “이는 계속된 문제이며, 정기적으로 홍수후에 준설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함.

(OWATONNA, 2016-10-20)

<원본출처:

[http://www.southernminn.com/owatonna\\_peoples\\_press/news/article/7fb1f5c6-fe04-54aa-ab74-3b0804500cf5.html](http://www.southernminn.com/owatonna_peoples_press/news/article/7fb1f5c6-fe04-54aa-ab74-3b0804500cf5.html)

## Dredge project at Burlington Island draws concern; what about bald eagles there?

Burlington 시의 시정담당관은 미 육군 공병단의 'Delaware



강 40 acre의 정화 준설물질을 Burlington 시의 Burlington 섬에 투기하는 것과 이를 위하여 강 기슭의 수목들을 벌목하기로 한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음. Burlington 섬은 20세기 초반에 인기 있는 유원지로 이용된 곳이었으나, 1920년, 1930년에 이어진 큰 화재로 모두 파괴되었으며, 그때 임시로 지어졌던 일부 주택들은 하수처리능력이 없어 1970년대 이후로 무인도가 된 지역임. 공병단은 Delaware 강의 준설물질 투기를 위하여 Burlington 섬을 이용하는 것은 시간적 금전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시는 이 계획에 대한 많은 의문은 가지고 있으며, 섬에 거주하는 3세대의 흰머리 독수리에게 발생할 문제점을 걱정하고 있음. 그리고 공병단이 벌목한 성목을 복구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PHILLYNEWS, 2016-10-03) <원본출처:

[http://www.philly.com/philly/news/new\\_jersey/20161003\\_Dredge\\_project\\_at\\_Burlington\\_Island\\_draws\\_concern\\_what\\_about\\_bald\\_eagles\\_there.html](http://www.philly.com/philly/news/new_jersey/20161003_Dredge_project_at_Burlington_Island_draws_concern_what_about_bald_eagles_there.html)>

## Santa Cruz harbor debuting new dredging vessel



200 t의 물을 담을 수 있는 Twin Lakes라는 이름의 새 준설 선박이 Santa Cruz 항에서 출항함. 이전의 선박인 Seabright는 30년의 서비스가 끝나고 6월 마지막 준설 작업에 착수했으나, 수십 번의 실패에 이어 완전히 고장남. Seabright는 지난 겨울 엘니뇨 폭풍으로 인해 작업을 이어갈 수 없었으며, 모래톱이 항구 입구부터 출구까지 모든 배를 덮어버림. 미국 해안 경비대는 일주일 간의 비상 안전지대를 발표하고 항구를 폐쇄하도록 함. 산타크루즈의 새로운 준설 장비는 5백만 달러이며 항구 회원들에 의해 지불됨. (KSBW, 2016-06-29)

<원본출처 : <http://www.ksbw.com/article/santa-cruz-harbor-debuting-new-dredging-vessel-1/1297512>>

## 이탈리아

### Remote controlled Dragflow dredge cleans coal mine tailing ponds



이탈리아의 Dragflow 유한주식회사는 독일의 인공호들의 정화에 원격조정준설기를 제공하였음. RWE는 모든 탄광의 빗물이 모일 뿐 아니라 채탄기의 물들이 모이는 3개의 연못으로부터 퇴적물 준설이 필요한 탄광을 열었음. Dragflow는 고낙차 EL1204HH 펌프를 탑재한 원격조정 준설장비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퇴적물을 효과적으로 준설하기 위한 가압수를 제트를 통하여 미세입자들을 혼합할 수 있는 제트링이 두개의 절단기 EXEL20과 같이 사용되었음. 본 준설시스템은 1시간에 150 m<sup>2</sup> 을 처리할 수 있는 출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일 조정으로 연속작동이 가능함. (WORLD PUMPS, 2016-10-24)

<원본출처 : <http://www.worldpumps.com/view/44945/remote-controlled-dragflow-dredge-cleans-coal-mine-tailing-ponds/>>

호주

**Dredging to attract 'mega cruise ships' to Cairns angers conservationists**



호주의 Queensland 주정부가 Cairns에서 길이 300 m의 메가 유람선 선박항로를 위하여 Trinity만을 준설하는 계획을 발표함. 이에 대하여 환경단체는 Great barrier reef 민감성 등의 환경피해를 우려를 표명하였음. 이에 환경부 장관 Steven Miles은 유람선을 수용함에 따라 케언즈 바다의 아름다운 암초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암초가 보호될 수 있음을 뜻하며,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음. 그리고 그는 수로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사회에 수로의 환경에 대하여 보고할 것임을 언급하였음. (ABC, 2016-06-21)

<원본출처: <http://www.abc.net.au/news/2016-06-21/dredging-to-attract-mega-cruise-ships-cairns-criticised/7531220>>

뉴질랜드

**Harbour dredge could push up Cook Strait ferry prices shipping federation**



Wellington 항구 방향으로 7 km 도랑을 준설하도록 계획한다면 Cook 해협이 다른 측면에 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 NZ 선박 연맹은 항구를 준설하고 더 큰 컨테이너들을 수용하기 위한 장치들을 적용하기 직전에 이르렀음. 뉴질랜드 선박기업 CentrePort는 Tauranga, Dunedin 항구

와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도는 더 큰 선박세대 놓치게 될 것이라 말했음. 이에 대해 연방 정부 책임자는 운송 산업이 "대형선" 위주였고, CentrePort를 위한 컨테이너선 사업은 궁극적으로 항구의 화물양에 의존하고 있음, 그리고 몇몇은 Wellington 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것이고, 반면 페리는 매혹적인 시장인데, 더 높은 요금이 페리 고객과 다른 항구 이용자들에게 부과될 것임을 언급했음. 항구는 6월, harbour 하부에서 6백만 m<sup>2</sup>의 퇴적물을 준설하여 Fitzroy Bay 바다에 투기하기 위한 자금승인을 신청할 계획임. 7 km의 수로준설은 항 입구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깊은 지점은 172 m에 이를 것이고 예산은 3천7백만 \$~4천4백만 \$ 임. (Stuff businessday, 2016-05-13)

<원본출처 : <http://www.stuff.co.nz/business/79886817/Harbour-dredge-could-push-up-Cook-Strait-ferry-prices-shipment-federation>>

**CentrePort dredge plans could benefit Manawatu businesses**



CentrePort는 Wellington 항의 준설로 인한 수심 확보가 NZ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이점을 야기할 것으로 말했음. Wellington 항의 준설은 대형 국제 선박의 수용을 피할 수 있으며, Manawatu사업비용을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음. CentrePort 최고 경영자는 사실상 이것이 내륙항으로의 중추가 될 것이며 CentrePort가 그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음. CentrePort는 Wellington 지역의 회에 항만동의를 신청 할 예정이며, 이에 14개월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음. (Stuff, 2016-05-12)

<원본출처: <http://www.stuff.co.nz/manawatu-standard/news/79884560/CentrePort-dredge-plans-could-benefit-Manawatu-businesses>>

## 6 회원 동향

### KIOST INTERNATIONAL SEMINAR (KIS)

#### 2016 개최 – 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홍기훈)에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New Ocean Observation Initiatives and New Applications of Ocean Scien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에서 개최함. 본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일본, 독일, 미국 및 국내의 교수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지진, 해양관측, 새로운 해양과학의 적용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며, 국제 협력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임.

특히 미 육군공병단의 Dr. Todd Bridges, Ms. Cate Fox-Lent 와 우리학회의 부회장인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의 김경련 박사가 각각 연안의 복원을 위한 자연과 공학, 공공 해양작업을 위한 의사결정도구, 해양오염퇴적물 재활용을 위한 정화기술 개발에 대한 강연할 예정임.

일시: 30Nov., 2016~2Dec., 2016

장소: 해양과학기술원 본원3 연구동 대강당

등록 및 정보: <http://www.kiskiostack>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회원 중 동향을 신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한국환경준설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031-400-6152 keds2011@naver.com





(사)한국환경준설학회 단체회원 소개

 <p>(주)신대양 <a href="http://www.sindaeyang.co.kr">http://www.sindaeyang.co.kr</a>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16 번길 67 번지 TEL 051-266-3306, Fax 051-266-3310</p>	 <p>(주)에이치플러스에코 <a href="http://www.hpluseco.co.kr">http://www.hpluseco.co.kr</a>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2 제이타워 TEL 02-2037-2986, Fax 02-2037-2979</p>
 <p>해양생태기술연구소 <a href="http://www.marine-eco.co.kr">http://www.marine-eco.co.kr</a>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191 동명빌딩 1,4 층(용당동 485-1) TEL 051-611-6200, FAX 051-611-0588</p>	 <p>(주)토양자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디 오슈퍼리움 오피스동 1305 호 TEL 02-714-7221, FAX 02-782-5642</p>
 <p>(주)지오시스템리서치 <a href="http://www.geosr.com/">http://www.geosr.com/</a>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0 한림휴먼타워 306 호 TEL 070-7019-0600, Fax 031-479-7410</p>	 <p>EcoDredge 한국대리점, (주)프런티어오프쇼어서비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로 220-12 TEL:054-275-1917, FAX:054-281-1297</p>
 <p>(주)이구건설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9-7. TEL 055-855-0040, FAX 055-855-0042</p>	 <p>(주)코오롱워터앤에너지 <a href="http://www.kolonwe.com">http://www.kolonwe.com</a>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 센터 S 동 23 층 TEL 032-622-8140, Fax 032-622-8399</p>
 <p>(주)코리아살베지 <a href="http://www.korsal.com">http://www.korsal.com</a>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1 동 해기사협회 301 호 TEL 051-441-0801, FAX 051-441-9786</p>	 <p>(주)HN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50-3 TEL 061-691-5656, FAX 061-691-2727</p>